

“꿈꾸며 달리는 지금이 청춘...진심 담긴 음악이 이기죠”

NCT 데뷔 8년 만에 솔로 가수 출발 도영 “요즘 시장 흐름과는 다른 계열의 음악”

“청춘 속 크고 작은 사건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이야기하고 싶죠.”
그림 NCT의 도영은 최근 진행된 솔로 데뷔 기념 공동 인터뷰에서 “청춘이란 아름다운 나이대와 인생에서 보이는 좋은 것들이 모인 장면”이라며 “청춘”에 대해 이같이 정의했다.

후 8년 만에 비로소 솔로 가수로도 팬들과 만나게 됐다.
“청춘의 포말”은 청춘이라는 파도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감정을 담은 앨범이다. 도영의 목소리와 감성으로 솔직한 순간의 이야기를 녹여냈다.
도영은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고르고 음악을 작업한 것은 오래됐다”며 “제가 밴드 음악을 좋아하기에 (청춘처럼) 청량한 그림이 연상되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기에 희소성 있어 보이는 느낌이 좋았다”며 “찰나에 생겼다가 사라진다거나, 파도라는 큰 존재에 묻혀서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포말의 특성이 이번 앨범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의미와 잘 맞아떨어졌다. 청춘의 크고 작은 사건은 찰나에 일어난다”고 짚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반딧불’을 비롯해 자작곡 발라드 ‘새봄의 노래’, 모던 록 장르 ‘나의 바다에게’, 동료 멤버 마크와 소속사 선배 태연이 피쳐링으로 참여한 팝 발라드 ‘타임 머신’(Time Machine), 벽차오르는 기타 리프가 인상적



NCT 도영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인팝 록 장르 ‘달러스 리브 필드’ 등 총 10곡이 담겼다.
타이틀곡 ‘반딧불’은 “내가 지닌 작은 빛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는 마음이 뽀 가사와 어우러져 화창한 봄날에 잘 어울린다.
이는 NCT로서 그동안 선보인 강렬한 댄스 음악과는 정반대의 색깔이다.
도영은 “요즘 음악 시장과는 조금 다른 계열의 음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좋은 음악을 들려주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어야겠다는 마음이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짧은 켈리지가 될 만한 음악을 준비한 게 아니라 걱정돼 된다”고 말했다.
음악 장르뿐만 아니라 노래가 담긴 ‘형식’도 이색적이다. 디지털 싱글 혹은 싱글, 많이 수록해 봐야 미니음반 정도가 보편적인 요즘 10곡 짝 찬 정규음반으로 솔로 데뷔해서다.

도영은 “이것도 제 고집스러운 면을 보여주는 듯하다”며 “다시 찾아온 ‘시작’인 만큼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곡 수의 제한 없이 만족스러운 노래를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NCT 활동과의 차별점을 묻자 “NCT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태운 행이나 마크가 떠오르지, 저는 아니라는 객관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그래서 이번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별화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다. NCT와 다른 노선의 음악을 한다고 해도 작위적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모든 것을 이기는 건 다름 아닌 진심이 담긴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앨범을 준비하고, 또 살아보려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앨범을 낼 거예요.” /연합뉴스

Table with 2 columns: Day (e.g., 쥐띠, 소띠) and Horoscope content.

광주매일 TV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PC·스마트폰 YouTube Facebook에서 볼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grid showing channels (KBS1, KBS2, MBC, KBC·SBS, EBS1) and their respective programs.

도로교통공단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Includes program announcements for '출발! 광주대행진' and '하이브리드 라디오'.

KCTV 광주방송 KCTV특집 < 광주시립극장관현악단 30주년 기념 공연 >. Includes program announcements for '현장인터뷰 이사람' and '맛있는 발골 서울음광'.